

한국의 기독교철학자 100년(1)

-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철학자

최태연 백석신학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현대철학사에서 ‘기독교철학자’(Christian philosophers)들이 어떻게 철학을 해왔는지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따라서 기독교철학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거나 도대체 ‘기독교철학’이 가능한지 따위의 문제는 이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거나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서 활동한 이들 중에서 개신교(protestant) 신앙을 갖거나 개신교의 영향 아래 철학 활동을 한 경우를 기독교철학자의 범주에 넣으려 한다. 필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철학자들이 세 부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세 부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통적인 기독교 신자로서 철저하게 신앙의 전제 위에서 철학 활동을 한 학자
- (2)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철학적 회의와 비판을 동시에 추구한 학자
- (3) 기독교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타종교나 일반 철학과 접목을 시도한 학자

이 세 부류의 철학자들이 모두 기독교철학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들의 인간적인 삶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원천 또는 출발점이 기독교이며 기독교적 태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 신앙과 철학적 작업을 분리해서 저술이나 논문에서 전혀 기독교적인 관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분석철학 분야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도 개종한 개신교인이었으나 그의 현상학 연구에서는 종교나 신의 문제는 거의 등장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 논문은 2004년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연구소가 수행한 「한국 근현대 서양철학의 수용과 '기독교철학'의 형성 - 한국 근현대 기독교사상가를 중심으로 -」의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기독교를 무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1)과 (2)에 속하는 철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3)에 속하는 철학들도 그들의 사상의 중심에 기독교를 놓고 다른 철학 이론이나 다른 종교의 믿음과 사상을 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²⁾

다음으로 이들을 시기별로 나누는 시기구분의 문제가 남는다. 필자는 1920년대로부터 2020년까지 100년에 가까운 전체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눈다. 1기는 <일제 강점기>(1925~1945), 2기는 <해방 후 산업화 시기>(1945~1979), 3기는 <민주화 시기>(1980~2020)이다. 이 시기 구분은 아무래도 임의적이다. 우선 1기 <일제강점기>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만, 유신정권이 끝나는 1979년은 기점으로 2, 3기를 나눈 이유는 1920년대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청년기를 경험한 2기 인물들과 193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70년 이후에야 비로소 교편을 잡은 3기 인물들³⁾의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한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시기>라고 명명한 1979년 이후 한국의 기독교철학자의 수도 비약적으로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1기 일제 강점기(1925~1945)에는 채필근, 최현배, 정석해, 한치진, 김기석 5인을 언급할 수 있고 2기 <해방 후 산업화 시기>(1945~1979)에는 김하태, 김형석, 안병욱, 조요한, 최명관, 고범서, 이규호의 7인을 들 수 있다. 그에 비해 3기 <민주화 시기>(1980~2020)에는 철학의 13개 영역에서 70명에 가까운 기독교철학자들을 배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철학자의 양적 팽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서양철학을 전공한 많은 철학도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국내 대학에 정착했고 한국철학회 산하 다양한 분과 학회들이 생겨나고 대동철학회, 범한철학회, 대한철학회 등의 전국규모 철학회가 생겨나는 한국철학의 양적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개신교의 양적 팽창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활동한 대부분의 기독교철학자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배출된 기독교철학자들의 종교적 배경과 그들의 철학적 특징,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관련된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인물들과 방대한 자료를 한 논문에 담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낀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기 <일제 강점기>(1925~1945)의 철학자들을 다루는 것으로

2)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들로 황필호, 김용욱, 강영계를 들 수 있다.

3) 황필호(1937)와 손봉호(1938)이 대표적이다.

제한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이 논문은 아직 충분한 자료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필되었다는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 현대 서양철학의 전개과정에서 기독교철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그들의 철학적 작업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더 먼 미래의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2. 1기: 일제 강점기(1920~1945)

일제 강점기의 한국 서양철학은 1920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⁴⁾ 한국의 기독교철학은 이보다 조금 늦은 192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현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안남북도의 서북지방 출신이고 기독교학교인 송실학교, 오산학교, 신성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귀국 후에는 송실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철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철학과의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 철학교육이나 연구를 했다고 보다는 신학과 연계하거나 철학개론 등의 교양교육을 하는데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2.1 채필근(1885~1973)

편운(片雲) 채필근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로 일본 유학을 한 한국의 장로교 목사이며 신학자이며 철학자다. 그는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한학자 채응무의 독자로 태어났다. 그가 13세 되던 1898년 기독교인이 된 부친의 권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1900년부터 평양에서 길선주가 인도하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세례를 받고 7년간 전도인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 송실중학교에 입학한다. 1909년에는 송실전문학교에 진학한 후 도산 안창호의 영향으로 교내에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을사조약 반대운동에 참여한다. 1911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북간도로 떠나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의 전도사로 함경북도와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열정적인 목회사역과 교회개척을 담당한다. 191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함경북도에서 목회를 병행하면서 1918년에 신학교를 졸업한다. 마침내 그는 1920년 캐나다장로회 선교부의 주선으로 명치학원 고등학부 사범과

4) 1917년 최두선이 한국인 최초로 와세다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했고 두 번째로 1918년 춘원 이광수가 와세다대학 철학과 2학년까지 수학했다. 1921년에는 이관용이 스위스 취리히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고: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열린책들, 2003), 251, 255, 261~262; 이태우, 『일제 강점기 한국철학』 (살림터, 2018), 149.

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1923년 동경제대 철학과에 진학한 후 1925년에 졸업한다. 졸업 후 채필근은 동경제대의 교수제의를 거절하고 1926년 귀국하여 숭실전문학교의 교수가 된다.⁵⁾

채필근이 숭실전문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은 주로 서양철학과 비교종교론인데 이 강의들이 해방 후에 『비교종교론』(1960), 『철학과 종교의 대화』(1964)로 출판된다. 그의 연구 대부분은 철학과 종교, 철학과 신학,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를 보여주는 『철학과 종교의 대화』의 목차에는 ‘우주 창조설과 진화론’, ‘인과관계’, ‘신존재에 대한 논증’, ‘신의 삼위일체론’,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중보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교의 속죄론’, ‘종교의 탈속적 경향’, ‘신비주의의 종교적 가치’, ‘그리스도교와 신학’, ‘종교들과 그리스도교’가 등장한다. 그는 끊임없이 신학의 주제들을 철학과 타 종교와 비교하면서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접촉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표현대로 신학과 철학은 항상 갈등 관계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모든 철학의 철학이 된다는 것”⁶⁾을 논증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가 일찍이 1928년에 평양신학교의 논문집 『신학지남』에 썼던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일종의 ‘유신철학’(有神哲學)인 신학은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학자에게 회의의 태도를 갖게 하지만, 신학과 철학은 우주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데서 유사한 활동이며 동일한 가치를 갖는 학문이다. 신학이 신(神)을 전제로 하고 신앙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반면에 철학은 나뉘는 전제가 되는 신념을 논증을 통해 확인하는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신학이 신을 전제로 삼아 가지고 만유의 존재와 그 전개되는 것을 설명할 것이면 과학적이 안히며 따라서 철학가튼 가치를 가진 것이 안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제의 유무만 가지구서는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하는 것을 결정할 표준이 되지 안힐 것이다. 엇더한 체계를 과학도 되게 하고 비과학도 되게 하는 것은 전제의 유무가 안히다. 다만 그 전제의 본질과 및 운용하는데 잇슬 것이다. 과학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전제가 업시 성립된다 고 하는 것은 과언이 될 것이다. 과학은 비록 귀납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 개념에 도착하여서는 맞치 한가지가 되는 것이다.⁷⁾

5) 장규식, 「채필근의 생애와 사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9 (1995), 5~6;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266.

6) 채필근, 『철학과 종교의 대화』(대한기독교서회, 1964),

채필근에게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개념은 진리다. 이 세 학문은 그 전제의 내용과 운영방법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신학적으로도 채필근은 1930년대부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노선의 중도노선을 견지하면서 양극단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를 둘러싼 논쟁에서 신사참배가 국민으로서의 의례라는 논리를 제공했다. 더욱이 그는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강제로 폐교된 뒤, 1940년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새로 개교한 신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943년에는 장로교단이 일본기독교장로교단으로 흡수되었을 때 초대 통리가 되었다.⁸⁾

2.2 최현배(1894~1970)

외설 최현배는 널리 알려진 한글학자다. 그러나 그는 일제 강점기에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문과를 거쳐 교토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졸업논문으로 「페스타로찌의 교육학」 과 「조선 민족 개생의 도」 를 쓴 교육학자이며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1926년 봄부터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를 겸직하면서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일경에 피검되어 강제로 퇴직당하기까지 13년간 철학개론, 서양철학사, 논리학, 윤리학, 심리학, 교육학과 한글 문법을 가르쳤다.⁹⁾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난 최현배의 어린 시절 종교적 배경은 불분명하다. 그는 동네 서당에 다니다가 14세부터 신교육을 받았다. 경술국치의 해인 1910년에 관립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친척 박필주와 그 친구 김두봉의 권유로 상동교회에서 열린 주시경의 조선어 강습회에 참석한다. 이 사건이 그의 생애를 결정한 카이로스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빼앗긴 나라를 조선말의 발전을 통해 회복하려고 ‘부릅뜬 두 눈과 높은 목소리로’ 가르치다가 38세에 요절한 주시경은 그의 영원한 스승이 되었다. 이 사실은 그가 한글운동을 민족운동과 결합하기 위해 대종교에 입교한 주시경을 따라 대종교에 입교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⁰⁾ 하지만 대종교와

7) 채필근, 「신학과 철학의 관계」, 『신학지남』 제10권 제1호 (1928), 49~50.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5660> (2020. 9.16)

9) 최현배,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1』 (채륜, 2019), 134. 참고: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265~266; 고영근,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1995), 31, 49; 김삼웅, 『외설 최현배 평전』 (채륜, 2018), 58~59.

10) 김삼웅, 『외설 최현배 평전』, 31.

의 관계는 1915년 그의 일본 유학과 더불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최현배는 연희전문학교 교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자신의 생애를 회고한 글 「나의 인생과 나의 학문」에는 그의 신앙고백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있다.

어버이에게서 타고난 몸이 저렇듯 잔약하였고, 거친 세파에 시달림이 이렇듯 자심하였음을 생각하고, 교회가 넘도록 아직 성한 몸을 지니고서 무도한 세력과 다투어 가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는 오로지 하느님이 돌봐 주신 은혜의 소치임을 깨닫고 감사와 충정을 품는 동시에, 남은 살이(生)도 마저 나라와 겨레의 문화와 번영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바치려는 굳은 뜻을 스스로 다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¹¹⁾

비록 최현배가 연희전문과 이화여전에서 십여년 동안 서양철학 과목을 가르쳤지만, 철학에 관한 저서나 논문은 전무하다. 그의 저서는 24권에 이르나 1930년에 간행된 『조선 민족 갱생의 도』를 빼고는 모두 한글에 관한 책이다.¹²⁾ 그 중 『우리말본』(첫째 때 1929, 은책 1937), 『한글잡』(1942), 『한글의 투쟁』(1954)과 그가 공동편찬한 『큰사전』(한글학회, 1957)은 한글 연구사에 기념비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그가 기독교와 관련해서 쓴 글도 대부분 한글과 관계되어 있다. 「한글의 정리와 예수교」(1938), 「감사하신 하나님」은 말이 안된다(1959), 「한국 기독교와 한글」(1961), 「성서와 한글」(1965)이 그것이다. 최현배는 이 글들에서 기독교의 성경 번역을 통해 외래어 표기, 명사의 맞춤법, 띄어쓰기가 정립되었던 점과¹³⁾ 1960년에 3천만 권에 도달한 성경의 보급을 통해 가난한 대중이 한글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음을 높이 평가한다.¹⁴⁾

2.3 정석해(1899~1996)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난 정석해는 단순한 철학자라기보다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후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고 유신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투사였다. 그는 어린시절 부친 정주언이 세운 인화재(仁和齋)라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 1907년 장로

11) 최현배,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1』, 134.

12) 김삼웅, 『외설 최현배 평전』, 271~272.

13) 최현배,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3』(채륜, 2019), 375~378.

14) 최현배,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1』, 399.

교회에서 세운 명흥소학교를 거쳐 1914년에 선천의 기독교학교인 신성학교에서 수학했다. 그와 기독교의 만남은 부친 정주언이 서당을 신식학교로 바꾸고 나서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부터다. 그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일생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¹⁵⁾ 그는 1916년 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창성에서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금광의 교회학교 교원으로 부임했다. 다음해인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 입학했다가 문과로 전과하여 백상규로부터 논리학을 배웠다.¹⁶⁾

1919년에 정석해는 연희전문학교 YMCA 회장으로 3·1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경향 각지에 배포하고 3월 5일 김원벽, 강기덕과 남대문 역두시위를 주도했다가 간신히 피신하여 고향 철산을 거쳐 3월 18일 만주 안동현으로 피신하여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마침내 그는 1920년 베이징을 거쳐 상해로 가서 도산 안창호의 권유로 흥사단에 가입했다가 서양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결심했다. 상해임시정부의 주선으로 중국인 학생들을 프랑스로 유학시키는 유법검학회를 통해 프랑스 파리로 유학한 그는 프랑스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일하다가 1922년 독일로 옮겨 이미륵의 도움으로 뷔르츠부르크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했다. 1923년에는 베를린대학에서 1년간 수학하다가 생활고로 학업을 계속 못하고 1924년 파리로 돌아와 파리대학 철학부에 입학하여 1930년 수학과 과학사로 파리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프랑스에도 이차대전의 참화가 미치자 마침내 1939년 귀국길에 올랐다가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일본으로 압송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2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한 그는 불온인사로 몰려 칩거생활을 하다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연희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어 학교행정을 맡으면서 논리학과 철학, 수학, 불어 등을 가르쳤다.¹⁷⁾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처 서울을 떠나지 못한 정석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고 1960년 4·19 혁명 때에는 4·25 교수단 시위를 주도했지만 5·16 군사쿠데타의 여파로 60세에 정년퇴직을 당했지만 1965년에는 '대일굴욕외교 반대 재경교수단 선언'과 시위를 주도했다.¹⁸⁾

그의 철학적 논의 방법은 논리학과 과학적 인식론을 통해 형이상학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논리와 과학을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추구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의 귀결은 기독교의 신과 사랑의 인류애였다.

그는 「현대 위기와 휴머니즘」이란 글에서 휴머니즘의 역사를 짧게 서술하면서 현대사회

15) 박상규, 『철학자 정석해 - 그의 시대, 그의 사상』, (사월의 책, 2016), 32.

16)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258.

17) 박상규, 『철학자 정석해 - 그의 시대, 그의 사상』, 196.

18) 박상규, 『철학자 정석해 - 그의 시대, 그의 사상』, 311, 424.

의 가장 큰 위협을 독재로 본다. 그리고 그 독재가 가져오는 파멸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종의 자유와 인류애적 책임을 공유하는 ‘유신론적’ 휴머니즘에서 발견한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이념인 ‘데모크라시’는 인간에게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무에 충실하여야 함이 꼭 필요하다. . . 이것이 칸트가 말한 ‘입법자요 신민’이다. 인간의 인격적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그 근저에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하는 인류애가 동인이 되어야 한다. . . 사람은 그 근원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류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로 복귀하는 것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생각된다.¹⁹⁾

정석해는 자신의 유신론적 휴머니즘을 형이상학으로 전개한 철학을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에서 발견한다. 베르그송이 19세기 실증주의적 유물론과 독일이 관념론에 대항하여 유럽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과학적 합리론의 경직성을 돌파하여 생명의 악동 현상을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힘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열린 도덕에 있어서 활동하는 것은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내면의 감동, 즉 정동(émotion)이다. 여기서 인간은 독립적 개성의 인격으로 영웅의 행위를 모방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다. . . 그 반면에 후자[열린 도덕]에 있어서의 사랑은 무한하다. 이 사랑은 다만 인간에 향할 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온 자연에까지 아낌없이 미치는 것이다. 아니, 실은 그것은 사람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것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절대적 사랑에 의해서만 인류는 정지하고 고정화된 사회의 껍질을 스스로 깨고 ‘사랑의 비약(élan d’amour)’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다.²⁰⁾

정석해는 유럽에서 철학을 공부한 한국의 1세대 철학자로서 하나의 철학이론을 깊이 연구해서 연구성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켜 유신론적 휴머니즘을 긍정했고 이 사상을 단지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다.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은 ‘지행합일’의 학문임을

19) 정석해, 『진리와 그 주변』 (사월의 책, 2016), 29~30.

20) 정석해, 『진리와 그 주변』 (사월의 책, 2016), 108~109.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철학자로서 그의 기여라고 하겠다.

2.4 한치진(1901~미상)

한치진은 1920년대 중반부터 대중매체(조선일보, 조선지광)와 철학개론서를 통해 한국철학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된 철학자다. 그는 평안남도 용강의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1917년 1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유학하던 형 한치관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 진링대학 부속중학교를 졸업하고 상하이에서 잠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업무를 도왔다. 그는 동향 출신의 항일운동가인 안창호를 존경했다. 1921년 도미하여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30년 9월에 귀국했다. 이듬해 9월 서울에서 철학연구사를 설립하고, 1932년 9월부터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했다.²¹⁾

한치진은 귀국 후 온 힘을 다해 『신심리학개론』(1930), 『논리학개론』(1931), 『아동의 심리와 교육』(1932), 『사회학개론』(1933), 『종교개혁사요』(1933), 『종교철학개론』(1934), 『증보윤리학개론』(1934), 『최신철학개론』(1936) 등을 저술했다. 이 중 『논리학개론』과 『증보윤리학개론』, 『최신철학개론』은 서양철학 분야의 최초의 교과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 개론들을 통해 그는 당시 미국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을 국내에 소개하는 기여를 했다. 1936년에는 교수직에서 물러나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철학연구를 하다가 1939년에 다시 이화여전에 복직한다. 1944년 일본패망에 대한 시국담을 한 죄로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에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정국에서 그는 이화여전 교수와 1947년 발족한 남조선과도정부 공보부의 고문으로 활약하면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해설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 방송강연을 발전시켜 『민주주의 원론』 3권과 『미국 민주주의: 미국의 이상과 문화』를 출간했다. 이 책들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이 책을 통해 정치학자로 떠올랐다. 그는 1947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납북되었다.²³⁾

21) 이태우, 『일제 강점기 한국철학』, 356.

22) 강영안,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형성 배경 -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 한국문헌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5 (1995), 18; 이장형,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 (2012), 39.

23) 이태우, 『일제 강점기 한국철학』, 357.

그의 책 『최신철학개론』을 통해 그의 철학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철학을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철학은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았다.²⁴⁾ 그리고 서론 뒤에 추가한 <자서(自序)>에서 철학을 연구하는 자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자의 장점은 사람이 자기를 아는데 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너를 알아라”하였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자다. 필자는 철학을 연구하므로써 많은 괴롭과 역경을 이기었다. 내가 철학을 하지 아니하였드면 낙심하여 말리죽었을 것이다. 나는 철학에게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1) 종교를 믿다가 신을 더 연구하려고 철학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2) 과학을 연구하다가 자연계의 궁극적 실재를 찾기 위하여 철학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의 무상함과 생활의 전후모순상태를 볼때에 의아가 생겨서 철학세계에 들어왔다.²⁵⁾

한치진은 어릴 적부터 기독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한 그에게 철학적 사유는 삶의 고통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철학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성적 사고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적 관점은 그가 1933년에 쓴 『종교개혁사요』에서 종교개혁을 평가할 때 다시 한번 드러난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종교개혁자들]은 구교의 화체설을 극복하였으나 원죄론, 속죄론, 예정설, 신앙관, 은혜관에 있어서 화체설 이상으로 신비적이며 특권적이었다. 그들은 고대 성도의 유물과 초상을 숭배하지 아니할뿐더러 순례와 같은 선행을 부인하고 면죄권 판매를 반대하여 일절 기적에 기초한 신앙을 장려하지 아니하였지마는 자기네의 교의만은 신성타하여 침범을 절대로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신앙상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권위의 속박을 타파하였던 것이다. ‘자유사상가’와 ‘합리론자’는 구신교에 다같이 증오물로 나타나 보였다. 이성을 교살하는 것은 그들의 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제물이었다. 이러케 자유사상과 세상지식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24) 한치진, 『최신철학개론』 (5판) (조선문화연구소, 1950). 1.

25) 한치진, 『최신철학개론』 (5판). 16.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등은 기독교의 구령사업을 중대시하지 아니하였다. 열렬한 종교신자라도 흔히 기독교의 주장을 전 생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만능주의 사회가 몰락하는데의 모순적 동태이었다.²⁶⁾

한치진의 철학적 태도, 즉 기독교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철학적 사유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독단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태도는 이후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공유된 하나의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2.5 김기석(1905~1974)

서은(西隱)은 김기석은 일제강점기에 철학자로 활약하다가 해방 후 교육학자로 활동한 철학자다. 그는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남강 이승훈이 세운 기독교학교인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8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다가 도호쿠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진학하여 동서양 철학을 폭넓게 공부하고 졸업했다. 남강 이승훈과 도산 안창호를 존경한 그는 귀국한 뒤 1941년부터 다시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결국 월남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1953년 한국교육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서울특별시 교육회 회장과 단국대학 학장을 지냈다.²⁷⁾

그는 특히 칸트철학과 국민윤리 및 도의교육을 강조했고 남강과 도산의 정신을 이어 윤리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남강 이승훈』(1964)과 『윤리전서』를 출판하고 120항으로 된 윤리강령을 만들어 보급했다. 또한 윤리운동지인 『이성』을 자비로 19집까지 간행해서 보급했다. 1964년에는 서울 중곡동에 <동방 아카데미>건물을 지어서 강의와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윤리운동을 펼쳤다.²⁸⁾ 그러나 김기석의 종교관은 칸트의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의 신(神)을 넘어선다. 그에게 종교는 절대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했다. 한치진과 달리 김기석은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신앙’(Sola fidei)을 받아 들인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은 Platon의 ‘선의 이데아’나 Kant의 단순한 ‘실천이성의

26) 한치진, 『종교개혁사료』(재판), (종교문화연구소, 1949), 209~210.

27) 동방정신문화연구소 편, 『서은 김기석 사상의 재조명』(한국학술정보, 2007), 109~110.

28) 동방정신문화연구소 편, 『서은 김기석 사상의 재조명』, 114.

요청'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은 고차의 실재이고 이 신의 실재는 나아가 고차의 사실인 것이다. 이념이나 요청이 아무리 높고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해도 우리들은 거기에 우리들 자신의 전존재를 맡기게는 되지 못한다. 실재의 신은 그대로 인격의 신이다. 이 인격적인 일이 신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신은 이것을 우리들이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들의 물음에 응답하고 또 우리들이 그 가슴에 돌아가 안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 절대자로서의 신과의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다.²⁹⁾

김기석의 이러한 종교관은 이미 1955년 『철학』 1호에 그가 기고한 「칸트와 바울」이라는 논문에 전제되어 있다. 그는 철학자 칸트와 종교인 바울이 인간의 내면적 심정성과 선의지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지만 그 귀결은 서로 다름을 강하게 주장한다.

나는 이 조그만 논고 속에서 칸트의 철학과 바울의 신앙을 대조 비교했다. 칸트와 바울이 한가지로 내면적인 심정성(Gesinnung)에서 출발하여 거의 같은 구비 같은 협만을 넘으면서 어떻게 서로 같지 않은 광경을 보았는가를 보라. . . 칸트는 도덕을 세우면서 자율을 제창했고 바울은 신앙 속에서 살면서 신의 은총을 찬양했다. 칸트는 동물적 충동을 물리치고 인간에 나오려고 했다. 바울은 죄와 육의 아래 사로잡힌 인간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한다. 그러나 칸트와 바울은 한 가지로 경건한 심정을 존중했고 한가지로 단순한 선행, 공적,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의 의문주의를 물리쳤다. 그러면서도 칸트는 결국 칸트요, 바울은 의연히 바울이었으니 칸트의 철학이 철학이요 신앙이 아니고 바울의 신앙이 신앙이고 철학이 아닌대로 칸트는 생각하기 위해서 신앙하려고 했고 바울은 신앙하기 위해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칸트는 생각했고 바울은 신앙했다.³⁰⁾

이 논문과 더불어 신앙의 길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김기석은 한국철학계에서 철학자로서의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사유를 전제하고 동시에 이끌어가는 원리가 기독교 신앙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이 그의 마지막 철학 논문이었다.

29) 김기석,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학술정보, 2005), 62~63.

30) 김기석, 「칸트와 바울」, 『철학』 1 (1955), 93~94.

3. 나오는 말

필자는 이 논문은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현대철학사에서 ‘기독교철학자’(Christian philosophers)들이 어떻게 철학을 해왔는지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 선언한 그 방대한(?) 범위에 스스로 기가 질려 1기 <일제 강점기>(1925~1945)의 기독교철학자 5인 - 채필근, 최현배, 정석해, 한치진, 김기석 -을 다루는데 그쳤다. 그나마 내용적으로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다만 여기까지의 서술을 통해 한국 기독교 철학자들의 공통점과 다양성을 드러내었다면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다. 채필근은 신학자와 목회자였고 최현배는 한글학자였다. 정석해는 수학과 불어를 가르친 철학자였고 한치진은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학 저술을 한 철학교수였다. 마지막으로 김기석은 철학으로 시작하여 윤리운동에 매진한 교육학자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던 공통점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이자 신앙 세계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과 관심사를 가졌지만, 도올 김용옥이 고백한대로 단 한 순간도 “결코 나의 삶의 실존으로부터 객화될 수 없다는 사실”³¹⁾에서 떠날 수가 없었음에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이 논문이 우선적으로 밝히려는 철학적 사실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형성 배경 -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 한국문헌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5 (1995).
- 고영근,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1995).
- 김기석, 「칸트와 바울」, 『철학』 1 (1955).
- 김기석,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학술정보, 2005).
- 김삼웅, 『외설 최현배 평전』 (채륜, 2018).
- 동방정신문화연구소 편, 『서은 김기석 사상의 재조명』 (한국학술정보, 2007)
-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열린책들, 2003).
- 이장형,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 24집 (2012).
- 이태우, 『일제 강점기 한국철학』 (살림터, 2018).

31) 김용옥, 『기독교 성서의 이해』 (통나무, 2007), 12.

- 장규식, 「채필근의 생애와 사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9 (1995).
- 채필근, 『철학과 종교의 대화』 (대한기독교서회, 1964).
- 채필근, 「신학과 철학의 관계」, 『신학지남』 제10권 제1호 (1928).
- 최현배, 『외설 최현배의 문학·논술·논문 전집1』 (채륜, 2019).
- 한치진, 『최신철학개론』 (5판) (조선문화연구소, 1950).
- 한치진, 『종교개혁사요』 (재판), (종교문화연구소, 194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5660>(2020. 9.1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0376>(2020. 9.16)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한국의 기독교철학자 100년(1) -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철학자 -	발표자	최태연
		논찬자 (소속)	양성만 (우석대학교)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전통의 산물이며 그 전통 속에서 활동하고 또 새로운 전통을 세워 나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태연 교수의 이 논문 또는 기획이 바로 이 작업에 해당한다. 누구라도 기가 질릴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사업을 자신의 과업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최 교수의 용단과 발걸음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논문은 우리 민족이 서양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철학자의 삶을 산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배경과 그들의 철학적 특징, 신앙과 철학을 연관시키는 방식을 정리하는 긴 작업의 첫 번째 부분이다. 발표자가 나눈 세 시기 중 그 첫 시기 1925~1945년 사이에 기독교인 철학자들의 삶과 신앙, 그들의 철학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은 채필근 목사, 최현배 교수, 정석해 교수, 한치진 교수, 김기석 교수, 다섯 명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인들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독교를 철학과 연관시키는 방식은 달랐다. 발표자는 세 부류로 구분한다. 철저하게 신앙의 전제 위에서 철학은 한 학자, 신앙을 가졌지만 철학적 회의와 비판을 추구한 학자, 신앙적 배경을 가졌으나 타종교나 일반 학문과 접목을 시도한 학자. 발표자는 위의 5명의 학자들이 이 셋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는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논찬자가 보기에는 정석해 교수와 김기석 교수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한치진 교수가 두 번째에 속하리라고 생각된다.

1. 아직 미완의 기획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의 공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장기관 옆의 구경꾼이 부담 없이 훈수 두듯 몇 말씀 드러본다.

2.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구교는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구교도 기독교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역사적 시기를 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여기에 소개된 기독교인 학자들을 선정할 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부류 구분의 적절성)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흐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 흐름이 우리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나 자신에 대해 사고무친(四顧無親) 고아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이 글을 통해 내 앞에 선배들이 즐비했었고, 알게 모르게 그분들 덕분에 내가,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 준 최태연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감사드린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